

2016 여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천성지역아동센터



2016. 7

천성지역아동센터 김*은

가덕도, 이름만 들어도 제게는 어릴 적 단짝친구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익숙하고도 아련한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 가덕도에 부모님 지인 분의 별장이 있어서 여름휴가 때면 꼭 휴가를 가곤 했습니다. 맑은 바다와 갈매기소리, 저에게는 어느 곳 부럽지 않은 휴양지였습니다. 어느 때처럼 그곳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던 중, 저 멀리 길에서 떼를 지어 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 이 섬에 웬 아이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며 어머니께 여쭙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주변에 고아원이 있다며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하시기에, 순간 저는 방학마다 부모님과 여행하러 오는 이곳의 모습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겹치며 몽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직 어린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다짐만큼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내가 큰다면 꼭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기억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공부에 지쳐 가덕도라는 곳을 잊은 채 이화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화를 입학과 동시에,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그저 대학을 잘 가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든 채우느라 급급했던 '봉사'라는 활동을 대학 시절에는 꼭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화봉사단'을 알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이화의 이름을 달고 하는 봉사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읽어보던 중, '가덕'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스쳐지나갔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 하고 다시 보니 가덕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선명했습니다. 이걸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 하겠다 .. 신이 제게 주신 기회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저 않고 제 모든 진심을 담아 지원했고 붙고 나서 정말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사회봉사팀에 전화해서 담당자님께 환호를 지르고.. 하하 그리고 가덕도에 도착했을 때 더욱 신기한 것은 가덕도가 제주도, 거제도 다음으로 큰 섬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제가 자주 놀러가던 동네와 걸어서 5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 센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예전에 자주 놀러오던 곳이라며 어릴 적 이곳에서 놀던 얘기를 해주니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곳에 대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가슴 벅참과 동시에 아이들과 저 사이의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꿈이 아동청소년을 치유하는 간호사가 되는 것인데 이 센터는 특이하게 아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연령대별로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저에게는 무엇보다 뜻 깊었습니다. 저는 저녁학습시간에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곧 수시 지원 기간이니 공부보다는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을 했습니다. 전 무조건적인 공부보다는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 친구와 기간 내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의 제일 첫 질문은 '무엇을 할 때 제일 보람차니?'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의 주요 가치관은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봉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 친구는 센터에 지적장애 어린이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를 챙기는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답을 했습니다. 듣자마자 제가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비슷해서 누구보다도 진심을 담아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집안의 장녀이자 센터의 맏언니였던 그 친구가 느꼈던 부담감 등을 저희 집

의 장녀인 제가 이해하며 그 친구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학습 시간은 제가 그 친구를 가르치는 일방적인 학습 지도가 아닌, 저도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친구도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쌍방향적 소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책과 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진정한 소통의 감정이었고 저는 제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와 바닷가를 걸으면서 했던 이야기와 센터에서 아이들과 쌓은 추억은 '어릴 적 자주 놀러갔던 가덕도'가 아닌 '아이들과의 추억이 담긴 가덕도'로 제 마음 속에 남아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신 이화와 사회봉사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지역아동센터 박*빈

가덕도로 떠나는 전날까지 걱정스러운 마음 가득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고 보람찬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다.

물론 당황스러웠던 일도 있었다. 봉사 이틀만에 수업자료를 모조리 폐기했다. 내가 준비해간 것은 중학 영어 수업자료와 심리테스트용 자료였는데,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았을 뿐더러 별다른 흥미를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연령대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치부의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해야했다.

이런 나 혼자만의 난리법석에도 봉사활동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은 팀원과 아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팀원들은 봉사활동의 모든 일을 잘 분담하였고 자기 일이 아니어도 나서서 도왔다. 또한 나의 부족한 지도에도 아이들은 끝까지 방실방실 웃으며 잘 따라주었다. 툭툭대면서도 은근슬쩍 도와주던 아이들이 고맙다.

어린 친구들과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내가 가장 즐거웠던 이유는 아이들의 천재성이었다. 특히 박정현이란 친구는 찰흙점으로 모형을 만들어도 그 안에 스토리를 담았다. 내가 칭찬해주면 어린애답지않게 슬쩍 입꼬리만 올리던 모습이 기억난다.

1학년 첫 여름방학이 이 봉사활동으로 의미있게 채워졌다. 팀원들과 천성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천성지역아동센터 김*희

이화 봉사단으로 선정되어 천성 지역 아동 센터 아이들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은 정말 행복하고 보람찬 일이었다. 아동 센터에 가기 전 봉사 단원들과 함께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정말 즐거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모습을 상상하다보니 하루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기쁜 마음도 컸지만 사실 아이들이 우리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많았다. 그래서 천성 지역 아동센터로 떠나기 전날까지 단원들과 문자를 나누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그리고 설렘을 가득 안고 천성 지역 아동센터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서도 어떤 아이들일까 상상해보고 우리 봉사단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부산 역에 도착하고 버스를 타고 천성 지역 아동 센터로 출발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미리 조를 짜냈고 조별로 앉아서 명찰 만들기를 시작했다. 선생님 말을 잘 따라주는 예쁜 조원들을 만나서 즐겁게 명찰 만들기를 시작했다. 정말 그림도 잘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한 예쁜 아이들이었다. 그렇게 명찰을 만들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친해졌던 것 같다. 그 후로 티셔츠도 함께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추억을 만들어갔다.

둘째 날에는 과학 실험, 셋째 날에는 음식 만들기, 넷째 날에는 양초 만들기, 마지막 날에는 편지 쓰기를 하면서 예쁜 추억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만들기 싫어하던 아이들도 이내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갔다. 나중에는 만든 작품을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금요일이 헤어지는 날이었는데 수요일부터 아이들과 헤어질 생각이 들면서 빨리 가는 시간이 너무 야속했다. 야속한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다 보니 금세 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떠날 때 아이들에게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할 수 없어서 너무 슬펐다. 이렇게 아이들과 헤어짐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천성 친구들과 함께한 5일을 돌아보면 봉사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귀여운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행복한 추억이었다고 생각된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던 예쁜 친구들 덕분에 정말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에 이 친구들을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랑받고 예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항상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천성지역아동센터 최*은

처음 천성지역 아동센터에 도착했을 때 외진 섬이라고 들었던 것과 조금 달리 편이 점과 큰 마트가 자리해있어 물품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풍경이 너무 예뻐 마음에 들었다. 숙소도 가정집 형식으로 넓고, 편해서 기분이 좋았다. 점심식사 동안 담당 선생님과 미리 아이들에 대해 들었는데,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활기차서 그런 거겠지 하며 쉽게 생각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처음 시간부터 선생님들이 아닌 봉사단들이 아이들을 모으고 자기소개도 우리가 시작하는 형식이어서 많이 당황해서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제대로 못하고 각자 팀을 나눠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기소개를 위해서 종이 3개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을 적고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의 반발이 많아 발표를 진행할 수 없었고 준비한 대로 되어가지 않는 프로그램에 짜증이 나기 일쑤였다. 다음은 페브릭 마카로 티셔츠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건성건성 하는 중학교 남자애들이 많았다. 어리숙했던 나는 봉사 온 목적을 잃고 짜증을 내며 아이들을 다그쳤고, 그럴수록 아이들도 내게 갖는 반감이 깊어졌다.

사실 다른 아이들은 웬만큼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하게 했지만, 왕성한 중학교 남자 아이들은 힘도 세고 입도 험해서 봉사단들이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속사정을 담당 선생님께서 듣고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의 나와 비슷했고,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 해 보기로 노력했다. 둘째 날 부터는 일주일동안 같이 할 조를 정했고, 이야기를 들은 나는 자원하여서 중학교 남자아이들을 맡았다. 아무리 이해하였어도 아이들이 말을 안들을 때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고, 화도 그냥 내게 되고, 욕을 들을 때에는 나도 같이 욕해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자격이 안되는 것 같아 자괴감도 들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시간을 지낼수록 아이들도 내게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주고, 뒷정리도 도와주는 등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처음에는 나를 싫어하던 아이들이, 날이 지날수록 “ 쌤, 우리 말아서 힘들죠?” 하면서 나를 이해해 주는 태도를 보였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장난으로 거절했지만 뒤에서는 은근히 도와주며 더 큰 힘이 되어주었다. 아이들은 장난치는 것으로 힘들게도 했지만 끝날 때에는 뒷정리를 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날은 이 친구가 어지러 놓은 것을 다른 친구가 치워주고, 다른 날은 바뀌어서 도와주었다. 그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 깊은 생각들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연 뒤로는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떠나기 싫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오히려 아이들이 도와주며 아이들에게 내가 많은 점을 배웠다. 중학생과의 생각차이는 너무나도 힘든 벽이었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통해 그 벽을 허물 수 있었고, 처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시도를 안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깨닫게 될 무렵은 이미 아이들과 헤어지는 날이었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아쉬웠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처음에는 얼떨결에 친구들 덕분에 봉사를 신청했고, 봉사에 대해 “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왜 봉사를 해야 하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내가 베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안고 돌아온 이번 봉사 덕분에 봉사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뜻 깊은 봉사활동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음 이화봉사단에도 신청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싶다.

천성지역아동센터 권*경

우리 이화 봉사단팀이 찾아갔던 곳은 부산 가덕도에 있는 천성 지역아동센터였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였는데, 그 마을에 살고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이 끝난 뒤, 학교가 끝난 뒤에 찾아와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곳이었다.

천성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기 전 센터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그날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시행착오도 겪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도 했고, 우리 봉사단을 낯설어 하는 아이들과 친해지는데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다. 또 몇몇 아이들은 처음 보는 우리 봉사단 앞에서 거친 말을 입에 담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봉사단 보다 더 빨리 마음을 열어주었다. 첫 번째 날이 지나가고, 두 번째 날부터 아이들은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해주었고, 우리의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의 그런 의도치 않은 응원에 힘입어 어쩌면 힘이 들 수 있었던 5일 동안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다.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찾아간 적은 처음이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와 함께했던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평소 나의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떳떳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 우리는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던 아이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 아이들처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